



버내큐러 디자인에서 패키지문화 발견과 해석

Discovery and Interpretation of Package Culture in Vernacular Design

김충한 / 한양여자대학 디자인계열 교수

들어가며

오늘날의 용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진보된 기술과 체계적인 프로세스, 치밀한 계획에 의한 대량생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특정지역의 전통적, 즉흥적, 무계획적 생산방식 등은 대량 생산체제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하위문화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후기산업사회의 체제속에서도 버내큐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 방식의 전통적 용기물은 그 다양한 유용성과 디자인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현대적 산물과 공존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제품이전과 그 이후로 명맥을 이어오는 전통 용기물을 중심으로 패키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전통 용기물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적인 유용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버내큐러 디자인에서의 패키지의 패러다임을 추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버내큐러디자인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본 후 전통 용기물의 사례를 한정하여 체험적, 재현적으로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패키지문화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겠다.

① 기존의 양산적 디자인과 차별성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② 자연발생적인 욕구에 의해 일상적 개념이나 습관적 방법으로 구체화한다.

③ 상위문화와 반대되는 한 축을 형성하며 공존적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④ 기존의 시스템적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프로세스적 장점이 있다.

⑤ 통풍, 방습효과가 우수하여 저장, 보관성이 뛰어난 합리적인 생활도구이다.

⑥ 미래의 친환경적 디자인 방향에서 다양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⑦ 일반 기성품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유일품으로써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다.

⑧ 민족의 주체성과 삶의 관습을 보여주는 고귀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버내큐러 디자인에서의 패키지 문화는 소멸성이 아닌 기존의 물질적 테크노에



휴머니티를 붙여 넣을 수 있는 문화적가치로서 그 존재성을 가지며 미래의 패키지 디자인환경에서 요구되는 대안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개발국을 면치 못하다가 1970~80년대에 들어서서 겨우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화의 역사가 짧았던 반면에 우리는 우리 고유의 버내큐러 디자인의 역사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이후 우리는 과거의 생활양식이나 전통문화를 급격히 뿌리친 채 고도성장의 급물살을 타고 완전한 후기산업 사회에 깊숙이 진입하여 오고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대부분의 중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화, 국제화의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소득의 증가는 무절제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고, 쾌락과 물질만능주의는 획일적이고 비개성적인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민족간, 지역간에 문화의 동질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는 국가간의 무역시장이 개방되고

수입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무한경쟁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평준화된 기술과 기능우위의 하드웨어적인 경쟁보다는 민족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접목시킨 창의적인 디자인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수십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소외되고 망각되어졌던 우리 고유의 우수한 생활용기 문화를 다시 지키고 보존하는 의미에서 버내큐러 디자인의 문화적, 상품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패키지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소득증대와 소비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구매자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마케팅활동이 가증되고 있다.

종합적인 마케팅활동에서의 패키지 디자인의 역할은 포장, 운송, 보관 등의 소비물이 직접 이동하는 물적유통 외에도 시장조사, 상품기획, 광고, 정보 등의 비물적 유통과도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며 마케팅활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패키지 디자인의 한 부분인 오늘날의 용기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제품개발디자인 방식을 따라 진보된 기술과 체계적인 프로세스, 치밀한 계획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면, 특정지역의 전통적 생산방법, 즉흥적, 무계획적생산, 가내공업적인 생산 등 이른바 버내큐러 디자인 생산방식은 대량생산체제의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하위문화

형태로 전락하여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후기산업사회의 체제속에서도 버내큐러 디자인 방식의 전통용기물은 다양한 유용성과 고귀한 디자인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제품 이전과 그 이후로 명맥을 이어오는 전통용기물 즉, 용기류, 함류, 짚풀류 장독, 보자기, 기타 등의 패키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하위 문화속에 묻혀 있던 버내큐러 디자인의 패키지적인 유용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존 용기 디자인에 재창조하여 포괄적이고 진보된 패키지 문화에 대한 차별화 및 대안적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자료를 분석하여 전통용기물의 사례를 한정하고 체험적, 재현적 관찰에 의한 연구방법을 따르고 그것으로 인한 패키지 문화의 발견과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II. 버내큐러 디자인 이해

1. 버내큐러 디자인 정의 및 개념

사전적 의미의 버내큐러(Vernacular)는 '자국어, 지방어, 일상어, 전문어, 은어' 등의 뜻이 있고 또 '지방, 시대, 집단 특유의 말, 병, 건축양식, 미술, 공예' 등의 뜻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ICSID2001 SEOUL20C 세계디자인전(Vernacular Mirror)에서 내린 정의에 의

하면 '버내큐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은 전통적으로 한 지역 또는 한 문화권 내에서 오랜 시기동안 확실한 디자인 가치(조형, 재질, 기술, 형태, 기능)를 가지면서 사용되어진 도구나 물건을 말한다.' 라고 하였으며 존 파일(John Pile) 교수는 버내큐러 디자인을 디자인의 3가지 근원적인 요소 즉, 자연, 버내큐러, 과학기술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곧 버내큐러가 디자인을 통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의 미와 모습을 고도로 발달된 현대 디자인의 영역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독특한 문화를 재창조"해 낼 수 있는 디자인의 "원천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버내큐러 디자인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적 연속성과 지역의 자연적 환경, 민중의 주체성을 대표하는 전통이 존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버내큐러 디자인은 지역적, 풍토적, 사회문화적 등 생활전반에 걸친 환경을 대상으로 민중의 일상적인 욕구와 문제해결을 유기적인 진화방법에 의해 실용화시켜 나가는 전통적인 디자인 습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민속생활도구들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이미 AD500년경에 끝내고 오늘날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버내큐러 디자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중심인 공예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예는 발전단계별로 여러 가지 요소(용도, 재료, 기술, 생활방식, 제조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전통문화가 베어있는 민속도구를 단순히 비과학적이고 비능률적인 후진성의 산물로 비하하고(한국의 산업디자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한국의 현대 디자인은 서구의 외래문화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버네큐러 디자인 작품에서도 현대디자인의 뿌리로 진화,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면서 그들속의 전통적 용기물이 만들어내는 패키지 문화를 다루고자 한다.

2. 버네큐러 디자인 분류

1) 의복류 - 관, 신발, 의상, 장신구

2) 보자기 - 조각보, 수보

3) 용기류

① 용도별 분류

- 저장 : 독, 항아리

- 조리 : 술, 시루, 약탕기, 물과 옹기, 떡살

- 난반 : 화로, 부손

- 제기 : 제기, 향합, 향로, 기타(타구)

- 병류 : 자라병, 편호, 백자편병, 도자기, 항아리, 술병

- 식기용 : 식기, 놋그릇, 국자, 주걱, 수저통, 주전자, 바가지, 표주박

- 기타 : 거울, 새옹, 담배통(함), 수반

② 재료별 분류

- 자기 : 백자, 청자, 분청사기, 회청자

- 유기 : 향합, 함, 담배함, 재털이, 사리함, 먹통, 놋그릇, 요강

- 옹기 : 독, 항아리, 시루, 소줏고리, 약탕기

- 금속 : 향로, 화로, 은제함

- 기타 : 바가지, 표주박, 곱돌술

4) 가구류

① 탁자 : 사방탁자, 제탁, 탁자

② 상 : 경상, 서안, 소반(원반, 반원반, 사각반, 두리반, 제상), 연상(장방, 죽장, 화류, 무늬)

③ 고비 : 대나무, 오동나무, 배나무, 두루마리

④ 장 : 약장, 옷장, 책장, 찬장

⑤ 함 : 관대함, 서류함, 지함, 팔각함, 예물함

⑥ 뒤주 : 잠곡뒤주, 통나무 뒤주, 뒤주

⑦ 반단이 : 밀양반단이, 남한산성 반단이, 강화반단이

⑧ 문갑 : 단문갑, 화류문갑

⑨ 기타 : 바둑판, 경대, 팔모함

5) 악기류

① 현악기 : 거문고, 소공후, 수공후, 향비파, 월금, 가야고, 아쟁

② 관악기 : 소, 통소, 단소, 적, 날나리, 영각, 농각, 나발, 생, 훈,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 지, 나리, 중금, 대금

③ 타악기 : 영도, 도, 교방고, 절고, 소고, 대고, 갈고, 장고, 박, 부, 자바라, 징, 팽과리, 축, 운라

6) 농기구

① 가공 : 풍구, 키, 도리깨, 물방아, 디딜방아, 연자매, 메, 맷돌과 다리, 돌절구, 나무절구, 되, 구유, 굴레, 국수틀, 전지, 날줄, 작두, 씨아, 짚신틀

② 경작 : 씨레, 고씨레, 밭나래, 번지, 보습, 따비, 고무래, 곱방메, 가래, 갈퀴, 쇠스랑, 호미, 낫

③ 운반 : 거름통(장군), 소밭채(용두래), 밭두래(무자위), 바소구리, 달구지, 지계

7) 짚, 풀류

① 저장(보관)류 : 풀뒤주, 섬, 달갈꾸러미, 달갈망대, 닭둥우리, 둥구미, 바구니, 쌀독, 지승호리병, 통발

② 생활용품 : 누에섬, 낫망태, 깔방석, 도래방석, 저자망태, 도시락동고리, 삼태기, 둥구미, 메주틀, 박다귀, 정동벌립, 채반, 소쿠리, 빗자루, 도롱이

8) 조명기구

① 등잔 : 목등잔, 도자등잔, 등가, 벽걸이등잔, 제등, 초롱, 조족등, 좌등, 호야등

② 촛대 : 청동, 무쇠, 철재, 목재, 유재

③ 석등 : 사찰의 석등, 능의 석등, 묘의 석등

9) 문방구 : 붓, 붓받침대, 필통, 먹통, 행연, 벼루, 먹, 연적, 종이, 서간통

10) 문양

① 금속 : 고리, 뺨침대, 자물쇠, 경첩, 감잡이, 귀잡이, 통귀쌈, 들쇠

② 막새, 전

③ 식물 : 동물문양, 식물문양, 곤충문양, 조류문양, 물고기문양, 추상문양

④ 단청

⑤ 부채

⑥ 종이공예 : 반질고리, 실첩, 지사각상자, 지갓, 갓집

⑦ 창호

11) 환경물

① 건물 : 한옥, 초가, 너와, 정자, 수장, 대문, 계단, 쇠장식, 굴뚝

② 조경

③ 상징물 : 솟대, 장승, 무덤

12) 연장류

① 목공가공용 : 톱, 자, 먹통, 대패, 끌, 호미칼, 송곳

② 대장간 연장

③ 부질간 연장

④ 유기간 연장

⑤ 은방연장

⑥ 장식방 연장

13) 기타 생활용품

① 금속 : 가위, 칼, 풍구, 대야, 요강

② 나무 : 도마, 주걱, 떡구유, 떡매, 채, 바가지, 고봉, 되, 죽부인, 다듬이, 빨래방망이

③ 돌 : 절구, 멧돌, 다듬이돌

④ 종이, 천 : 지합, 지통, 지승함, 병풍, 연, 벼갓모, 골무

3. 버네큐러 디자인 문화 유형 · 특징

3-1. 놀이문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와 경쟁하여 비교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승부근성이 팽배해 있다.

대부분의 놀이문화도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은 가난과 폐쇄, 정적인 농경생활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놀이문화가 발달하였다.

탈춤, 사물놀이, 농악대, 가면극 등을 통한 신명풀이와 재기, 팽이, 썰매, 굴렁쇠, 자치기, 활쏘기, 윷놀이, 널뛰기 등으로 유연한 몸놀림과 스피드, 균형감각을 키우며 장치기, 그네뛰기, 줄다리기, 차전놀이 등으로는 용감성과 투지, 호연지기를 기르는 놀이문화를 즐



[사진 1] 놀이도구



[사진 2] 의생활도구



졌다.

서민들의 대표적 악기문화는 북, 징, 팽과 리, 장고, 날나리, 상고, 소고 등을 이용한 농악으로서 화합과 애환이 어울어진 한마당이였다.

3-2. 의생활문화

1) 한복의 우수성

우리의 전통 한복은 우아함, 정갈함, 넉넉함, 풍성함을 존중한 미적욕구의 산물이다.

특히 양반사회의 도포는 위엄과 법도의 절제된 생활의 표본이며 내실을 들 때나 사랑방에 거처할 때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었다고 한다.

2) 화려한 장신구

우리의 한복은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몸을 단장하고 그 매무새를 한층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꾸민 몸치레

가 있다.

노리개와 주머니, 향낭이 대표적이며 화려한 문양과 세련된 모양은 품위와 멋과 신분을 대변한다. 그 외에도 바늘집, 장도, 가락지, 귀고리, 단추 등의 장신구 문화가 발전하였다.

3) 관모

머리를 정리하고 추위, 눈, 비를 피하기 위한 자연발생에서 출발하여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발전하였다.

망건과 갓은 조선조 선비의 나들이용으로, 굴레는 첫돌맞이의 의례용으로, 탕건은 집안에서, 초립은 짚으로 만든 일반인(상인)들이, 화관, 족두리는 혼례용으로 쓰여졌다.

4) 신발

갓신(가죽신)은 양반이나 상류층에서, 나막신은 남녀노소 신분에 구분없이 신었고 짚신은 서민용으로서, 상을 당했을 때는 '엄지

신', 눈이 쌓인 산길은 '설피', 미끄러운 길은 '등구미신'을 신었다.

고무신은 지금도 신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1910년 이후 한때 선풍적인 대중신발로 애용되었다.

3-3. 가정용품 문화

1) 보자기

보자기는 용도에 따라 물건보, 상보, 사주보, 함보, 기러기보가 있으며 제작방법에 따라 조각보, 수보, 직시보, 꾸밈새에 따라 홀보, 겹보, 솜보, 누비보, 사용계층에 따라 궁보, 민보,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당채보, 금박보, 판보, 천의 종류에 따라 명주보, 사보(紗褙), 단보(緞褙), 무명보, 베보 선조들의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보자기들이 오늘날 쇼핑백, 1회용 비닐봉지에 밀려 우리생활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지만 패션이나 현대디자인에 적용하여 그 아름다움을 재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진 3] 가정용품 도구



그리고 수저함, 수저집, 가위집, 골무, 바늘꽃이, 다리미집, 인두집, 반질고리, 실패, 베개 등의 소품들도 우리의 가정생활 문화가 깊이 베어 있으며 여인들의 손끝에서 표현된 아름다운 멋을 엿볼 수 있다.

2) 문구 및 그릇

붓은 선비문화의 대표적 용구로써 힘의 강약과 섬세하고 오묘한 정신의 리듬까지 종이에 전달하는 아주 기능적인 도구이며 벼루의 공예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릇종류로는 유기와 사발을 비롯한 식기와 자손의 번창과 조상,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제기, 그리고 조리를 위한 솥(釜, 鼎, 口)에는 무쇠솥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시루(약시루, 질시루, 콩나물시루)와 약탕기, 떡살 등도 중요한 도구이다.

그 밖에 향로, 풍로, 화로는 불을 중심으로 실내의 온도를 유지하기도 하며 생활감정이나 따뜻한 정서가 베어 있는 요긴한 존재였던 것이다.

3) 부채

우리의 전통부채는 깃털로 만든 우선, 자루가 달린 둥근부채인 단선, 접는 부채, 모양이나 용도가 틀린 별선 등이 있고 문양과 외형구조를 통하여 한국의 문양을 이해할 수 있다.

4) 조명

반사경이나 유리처럼 투명하지 않고 창호지나 천으로 막고 가리는 은은한 간접조명을 선호한 것은 자연의 밝기에 순응하기 위함이다. 달밤이나 별빛처럼 으스스한 밝기를 이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구름속에 가린 달빛을 더



욱 좋아했다.

등잔에는 나무, 새, 꽃 등의 문양을 조각하여 장식적이면서 화려하지 않는 은은하고 소박한 조형적 표현을 볼 수 있다. 촛대는 일상 생활용과 의례용이 있으며 분혜, 조립형 등 다양한 촛대가 발달되었다.

5) 짚, 풀용품

이 부분은 대단히 종류가 많지만 대부분 4), 5)번 Chapter에서 언급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겠다. 누에치기 도구로서 누에발과 누에솥, 메주틀, 정동벌립(모자), 밀짚모자, 채반, 빗자루, 도롱이(벚짚으로 엮은 옷으로서 비올 때 입고 일을 함) 등이 있다.

3-4. 생활도구 문화

버네큐러 디자인은 수천년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 수용하며 살아 온 조상들

[사진 4] 생활 도구



의 지혜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환경에 순응하기 위하여 자연의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거기에는 손끝으로 빚어진 생산자의 정성과 혼이 도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중과 문화의 동질성이 토착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4-1. 농기구

파종, 재배, 수확, 갈무리, 가공 등 농경작업에 필요한 연장으로써 단순한 연장의 의미를 초월한 민족의 문명, 경제, 생활, 문화를 통하여 가장 한국적인 상징적 이미지를 잘 표현해준다.

이는 토속적이며 풍토적인 조형미를 지니고 있으며 생활문화의 근원적인 느낌을 잘 연구할 수 있다.

농기구는 대략적으로 경작, 운반, 가공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작에는 땅을 일구고 덩어리를 부수며 바닥을 고르는 도구와 파종을 하거나 김을 매거나 끊어모으는 도구가 있다.

또 거름을 주거나 물을 댈 때나 농작물을 운반할 때 필요한 운반용도구가 있고 가공을 위한 도구로는 수확한 농작물을 고르기, 건조하기, 분쇄하기, 저장하기 위한 도구들이 대부분이다. 농산품을 제조하기 위한 도구에도 베틀, 물레, 작두, 자리틀, 가마니틀, 씨야기름틀, 국수틀, 약틀 등이 있다.

3-4-2. 연장

나무로 생활도구를 만들 때 필요한 목공구로는 톱, 대패, 먹통, 그므개, 도끼, 끌, 자귀,

자 등이 있고 금속으로 된 연장이나 철기구 등을 만드는 대장간 연장과 금속공예, 유기(놋쇠그릇)간, 금은방, 장식방 등에서 필요한 다양한 연장과 도구들이 있다.

3-4-3. 가구

우리의 전통가구는 한옥구조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모양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간결한 선과 소박하고 세련된 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방탁자는 조선시대 목공가구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형태와 완벽한 비례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 제례용 탁자를 비롯하여 상(연상, 서안, 경상, 소반, 원반)과 소반이 있는데 소반은 개인용, 객용, 주안상, 제상, 교자상, 들상 등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다.

장은 옆면의 넓이 길게 하나의 판으로 된 것을 장이라고 하고 2, 3층으로 선반이 되어 있으며 옷장, 책장, 찬장 등이 있다.

농은 2, 3층이 각각 분리되어 방의 구조에 따라 배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반달이는 소물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경첩의 모양이나 문양이 정교하고 구성의 비례가 완벽하다.

문갑은 벽과 사람의 허전한 공간을 메워주며 문방구나 기타 기물을 보관하고 완상품을 올려 놓는 진열대 역할을 하는 등 장식적 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5. 운반 및 저장, 보관성 문화

물건을 담거나 넣거나 싸거나 들 것을 위한 옛 기물들에 나타난 우리 고유의 패키지 문화

[사진 5] 운반 및 저장, 보관성 도구



는 정성스러움과 물건을 아끼고 절약하는 알뜰한 모습이 깃들여 있다. 그러면서도 넉넉함, 편안함, 여유로움을 엿볼 수 있으며 부드럽고 질박하고 토속적인 이미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지게와 바소 거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싸리로 엮어 만든 바소거리를 지게에 얹어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논밭쪽, 언덕길, 산길 할 것 없이 모든 장소의 짐을 나를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기능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 거름통과 장군통은 거름이나 오줌을 담아서 옮길 수 있는 용기로서 악취와 오물도 농사에 유익하다면 거부감없이 작업하는 농부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저장, 보관을 위한 산물은 먼저 뒤주를 들



수 있다. 짚으로 만들어 곡물을 저장, 보관하는 풀뒤주(도정 및 가공이 안된 것)와 목재육면체뒤주(가공된 곡식, 콩 등) 또는 통나무뒤주가 있다.

독(옹기)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며 정성을 담아 저장하는 그릇으로 쌀독, 물독을 비롯해 김치, 젓갈, 장류 등 발효식품을 담은 김장독이 대표적이다.

장류를 담아 햇볕이 잘드는 한 곳에 모아두는 곳이 장독대이며 이것은 한국가정의 필수적인 공간이다.

옹기는 미세한 구멍에 의한 통기성 때문에 발효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자연환원성과 경제성 등의 특성이 있는 우수한 기능의 용기이다. 향아리는 옹기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함(函)에는 납폐함(納幣函)- 혼례전에 신랑댁에서 혼서(婚書)와 혼수(婚需)를 함에 넣어 신부댁에 보내는 것-과 예단함(禮段函) - 답례로 신부댁에서 신랑댁에 보낼 때 -을 비롯해 관모를 보관하는 관모함 그 외에 갓집, 빗집, 경대, 담배함, 안경집 등이 보관용기로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청자병류와 분청사기, 청화백자, 철화백자의 각각 향아리 및 병류가 발달하여 용기의 기능으로서 큰 몫을 하게 되었다.

바구니(盒)와 왕골삼합(莞草三合), 왕골동고리 등은 그 미려함이 뛰어나 완상용으로도 애용되었다. 이밖에도 저장, 보관에 적합한 짚, 풀류의 용기로서 쌀이나 벼를 담는 가마니, 씨앗 봉태(봉새기), 씨앗망태, 소금봉새기, 섬, 둥구미, 통발, 제기망태, 중

다래끼, 여치집 등등의 물건들이 패키지성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의 계란구러미는 형태와 구조를 노출시킨 아름다움, 깨지지 않게 보호하는 합리적 기능성, 그리고 포장 내용을 남에게 알려주는 정보성의 세가지 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포장문화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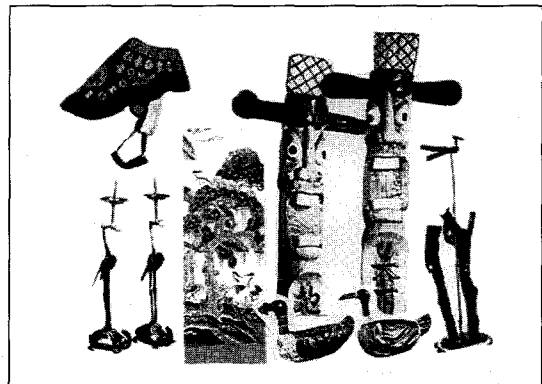
짚과 계란은 그 색채에 있어서나 직선과 원형의 기하학적 균형, 촉감 등에서 완벽한 대조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3-6. 의례문화

의례문화는 버내큐러 디자인의 유형 중 상징성 이미지를 가장 많이 표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나무나 돌로 만든 장승은 마을 길목이나 사찰 입구 등에 세워져 마을의 수호신 역할 같은 것을 하기도 하며 솟대는 주로 나무로 만든 새의 모양을 장대위에 얹어 놓은 것으로서 마을의 재앙을 없애고 복과 풍농 그리고 건강

(사진 6) 의례의 상징물



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적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 종교적 의례, 제례, 혼례를 비롯하여 굿, 제당, 사당, 생일, 돌, 회갑 등에까지 우리의 의례문화는 정성과 정갈함을 보이는 중요한 생활문화라고 하겠다.

3-7. 문학적 유형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버내큐러 디자인에서의 6가지의 문화적인 특징을 다음 [표 1]과 같이 각 유형별로 요약하였다.







3-8. 전통적 용기물의 범위

버내큐러 디자인의 산물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용기류는 저장이나 보관, 또는 운반(담아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주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패키지의 기능을 가진 보자기도 이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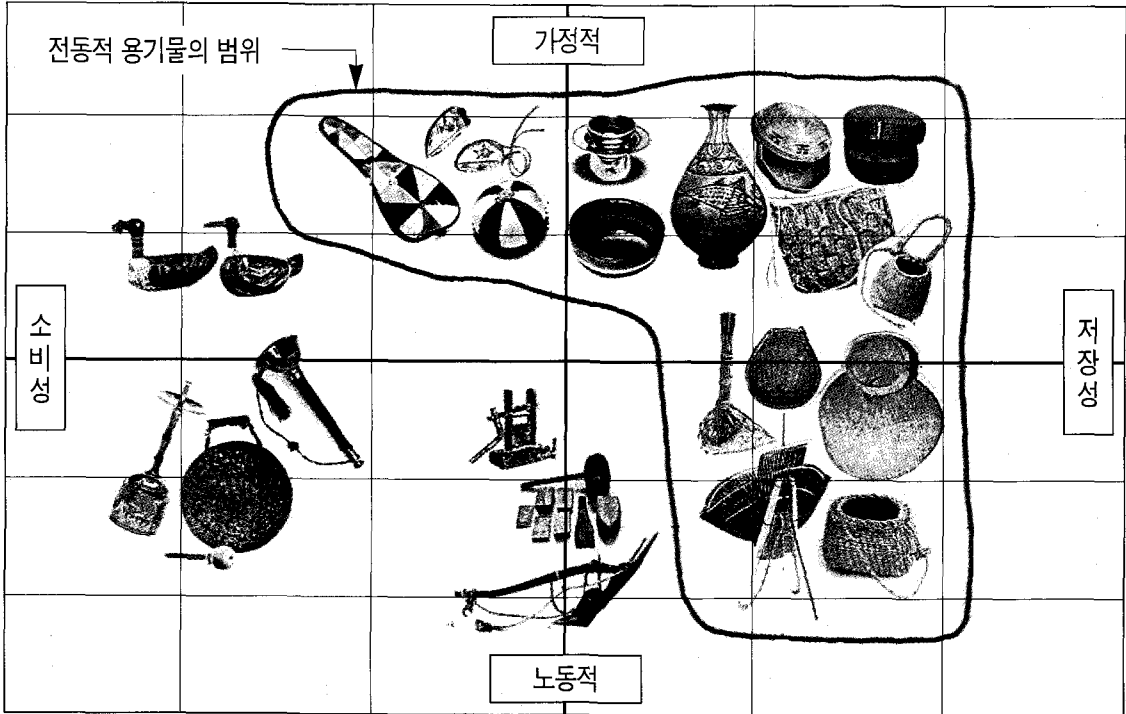
즉, 독, 항아리, 병, 그릇, 짚, 풀, 함, 집, 주머니, 보자기, 자루로 분류하여 그것들의 문화적 특징을 관찰하기로 한다.

[표 1] 버내큐러 디자인의 유형별 문화의 특징

유형	문화적 특징	유형	문화적 특징
놀이문화 	-유머, 해학, 풍자 -용감성, 투지, 민첩성, 호연지기 -화합, 동질성, 집단주의 -자연발생적 놀이	생활도구 문화 	-기능성, 지혜와 재능 -토속적 조형미, 자연소재 -간결한 선과 구성, 비례의 미가 완벽한 구성 -사용자 임의 제작, 신속 -무계획, 즉흥적, Non-system
의생활문화 	-양반사회 : 위엄, 법도, 절제 -화려, 세련, 품위, 멋 -우아, 정갈, 넉넉, 여유 -편리, 경제적, 절약, 소박 -여인의 섬세, 재능, 손재주 -사용자 직접 생산	운반, 저장보관 	-친환경, 전통문화중시 -합리적 보호(통풍, 방습, 방부) -내용물의 Open, 노출 -자연재, 쉽게 훼손, 거침 -Hand-Made, 인스턴트
가정용품문화 	-알뜰, 절약, 물건소중, 정성 -소박, 은은함, 자연소재 -짚, 풀문화, 도자기, 용기문화 -조형, 비례, 조화의 미 -사용자 생산	의례문화 	-정신적 문화적 요소 풍부 -상징물, 이미지, 수호신 -재양은 가고 풍농과 복을 빚 -장승, 솟대, 기원 -정성, 정갈, 감성



[사진 7] 패키지성 기물의 범위



III. 문화적 사례관찰

1. 저장, 보관성 기물의 문화성 관찰

버네큐러 디자인에서의 저장, 보관성 기물에 대한 문화적 특징을 [사진 8]과 같이 요약하였다.

2. 디자인 개발사례

버네큐러 디자인에서의 전통문화 이미지를 산업 디자인에 응용하여 개발한 사례는 [사진 9]와 [사진 10]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재창조 될 수 있다.

IV. 패키지 문화 특징과 해석

1. 패키지문화 특징

모든 패키지성 용기들은 자연의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연으로 환원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회성 포장용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한 멀티툴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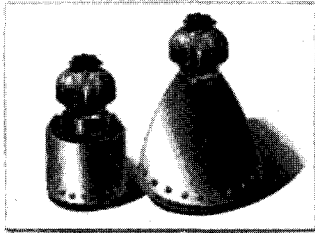
또 용기, 짚공예, 목제품 등은 통풍, 방습효과가 탁월하여 부패되지 않으며 내용물의 파손이 적어서 합리적인 포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용물을 저장하거나 보관 또는

[사진 8] 버네큐러 디자인의 유형별 문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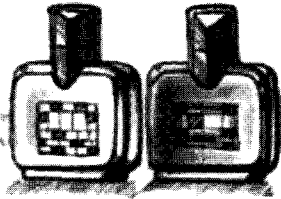
저장, 보관성 산물		문화적 특징		저장, 보관성 산물		문화적 특징	
	독	뒤주 쌀독 물독 장독 김장독	한가하고 소박, 서민적·실용적 일상적인 이미지 푸근하고 여유로움 심리적 안정감 구수하고 향토적		함	관모 갓 의복 문서 예물 반달이 문갑 경대	전통적 의례문화와 정 신문화 보존. 정성과 품 위 유지 정리, 안정 및 미의식, 인간성 회복 지 식과 교양의 미덕
	항아리	질동이 물두멍 시루 옹기 물허벅 대야	일상생활의 활동 가족적인 휴머니즘 오순도순 이웃간 공동 체·소박 서민적 이미지 전통음식의 맛		집	안경 인장 담배 인두 가위 다리미 베게 버선	물건의 소중함 숨씨와 미적재능 일상생활 습관 장식과 정서 함양 안방문화
	병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백자편병 술병	은은하고 맑은 비색 단순하고 소박 정교하고 부드럽다 고요하고 정적인 정서와 온정내재		주머니	주머니 귀주머니 오낭 향낭 전대 쌈지	여성의 아름다움 신변 장식구 정신과 심리적 안정 한 가, 정갈함의 이미지, 소유욕 자기표현·인정
	그릇	식기 주전자 제기 향로 막사발 찻잔	일상생활·가정 조상숭 배, 오른공경, 사랑과 질 서, 휴식, 안락, 평화적 인 삶의 이미지		보자기	책보 이불보 옷감보 일상보 상보 예단보	복(?), 복(福) 복을 상징하는 의미 정성과 사랑 싸고, 덮고, 가리고 두 르며 복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음
	짚·풀	계란꾸러미 망태기 등구미 가마니	수확의 기쁨과 물질적 만족 검소와 자연순응 알뜰하 고 정성스러우며 욕심없 음. 질박한 민초의 삶		자루	쌀자루 (광목) 소금자루 마대자루 씨앗자루	운반과 보관을 동시 만 족, 소유욕, 넉넉함, 만 족감 전달, 제공 나눔의 미덕 또는 은닉,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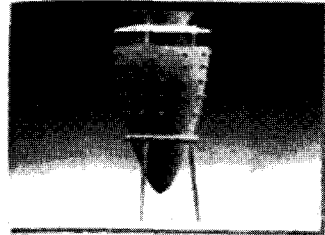
[사진 9] 버내큐러 디자인의 이미지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 사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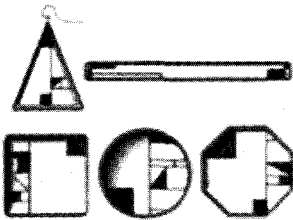
노리개의 모양을 응용한 화장품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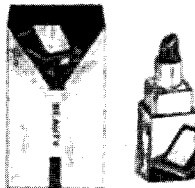
가파턴을 응용한 화장품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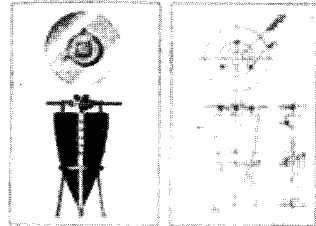
목재기의 모양을 응용한 무드램프



조각보 형태를 응용한 장신구
(넥타이, 카우스 버튼, 단추, 귀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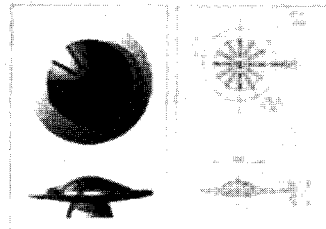
화장품 패키지와 립스틱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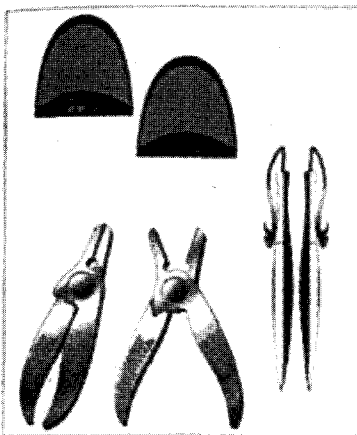
무드램프 아이디어 스케치와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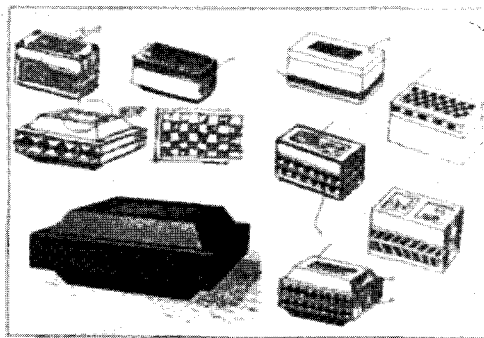
아이디어 스케치



가스감지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드로잉



금관, 관식의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



함의 기능을 응용한 소품함

※ 사례들은 수집한 자료 사진과 재현하여 촬영한 것임.

[사진 10] 버네큐러 디자인의 이미지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 사례 II





[사진 11] 현대적 패키지 문화와 버내큐러 패키지문화 비교

현대적 패키지문화의 특징		버내큐러 패키지의 문화의 특징
소비자와 경제 중시	문화성	전통과 문화중시
환경오염적, 폐기물 잔존	재활용성	친환경적, 자연환원
일회성사용, 단용도/편리	사용성	계속 사용, 다용도/불편
Closing, 간접설명	정보성	Open, 현물노출
적체, 이동, 배송, 광고	목적성	저장, 보관, 운반
· Producer-Volunate · Planned, System · Ready-Made Mass-Product	생산방법	· User-Volunate · Unplanned Non-system · Instant-Made Hand-Made
방부제 첨가, 유통기한 장기간 보관 가능	기능성	내용물 파손 방지 통풍, 방습 - 부패방지 합리적 보호/단기간 보관
가공재, 발암물질 견고/깎끔	재료	자연재, 무공해 쉽게 훼손/거침
현대적, 감각적	미	토속적, 감성적

근거리 운반에 주효하다.

생활의 필연도구로서 사용자 임의의 무게 획적, 즉흥적, 수작업에 의존하며 거칠고 쉽게 훼손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에 다소 불편이 따른다.

대를 이어온 생산자의 지혜와 재능과 숙련된 기술이 담겨 있는 이들은 후계자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의 정성과 사랑과 감성이 베어 있는 기물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발견되며, 풍도

적, 장식적인 전통문화가 잘 조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2. 패키지 문화의 해석

버내큐러 디자인에서의 패키지문화는 일반 기성품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다양함과 개인 취향적인 산물로서 사용자 임의에 의해 생산된 패키지 디자인 문화이다.

오늘날 환경, 공해문제의 고민에서 일탈할 수 있는 환경 생태학적 디자인의 방향성을 가

져다 주고 있다.

잊혀져 가는 과거의 풍습, 관습, 전통을 되살리려는, 최근 포스트모던 사회의 노력은 바로 버내큐러 디자인의 향수와 문화적 가치를 입증하는 단면을 알 수 있다.

소외되거나 소멸적인 하위문화가 아니라 일부는 포스트모던 디자인에 베어 들어가고 일부는 기성문화와 반대되는 한 축을 형성하며 상위문화와 상호공존한다.

오랜 시기동안 선조들의 반복된 재능과 지혜가 농축된 산물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고귀한 문화적 유산이다.

상위 테크노문화의 공허한 휴머니티(Humanity)를 보충해 줄 수 있으며 미래 패키지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적 영역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V. 결론

전통적 용기물을 통해서 버내큐러 디자인에서의 패키지 문화의 특징적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해석에 따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현대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패키지 디자인의 방향성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 후기 산업사회의 패키지 디자인의 문제점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연발생적인 욕구에 의해 일상적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형태를 따른다.

셋째, 상위문화와 하위문화가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하면서 발전하듯이 선진산업사회의 패키지 문화와 반대되는 한 축을 형성하여 공존적 보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넷째, 신속하고 유연한(Flexible) 프로세스는 기존의 시스템적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세스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통풍, 방습효과가 우수한 합리적인 보호물로서 저장, 보관성이 뛰어나며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사용의 멀티-유즈풀(Multi-useful)한 생활도구이다.

여섯째, 환경생태학적으로 자연동화적 디자인(Nature Assimilative Design), 그린 디자인, 재활용디자인(Recycling Design), 친환경디자인 개념 등은 미래적 디자인 방향에서 볼 때 다양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디자인적 특성이 있다.

일곱째, 일반기성품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비획일성, 개인취향성, 생산자 임의성, 일품 공예성 등은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덟째,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담긴 전통적인 패키지 문화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삶의 관습(Life-Custom)을 보여주는 고귀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버내큐러 디자인에서의 패키지 문화는 소멸성이 아닌 기존의 물질적 테크노에 휴머니티(Humanity)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서 그 존재성을 가지며 미래의 패키지 디자인 환경에서 요구되는 대안적 가능성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ko]